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중심만이 하나님과 성자와 통한다.
2. 성자가 중심이다. 일체 되어라.
3.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영이다.
4. 너의 중심은 무엇이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 하늘 앞에 중심은 '사랑'이다.
5. 마음의 중심이 돌아가면 일순간 무너진다.
6. 중심에 있으면 환난의 눈보라가 쳐도 그곳은 피난처다.
7. 오직 성자 중심이다. 마음과 생각이 중심에 서서 가야 휴거의 영이 된다.
8. 중심을 지키면 변함이 없다.
9. 사탄은 중심을 벗어나게 한다.
10. 중심자는 그 시대 반석이다. 그 위에 중심을 세워야 된다.
11. 중심을 잃으면 넘어가듯이, 중심자를 잃으면 넘어간다.
12. 중심자를 배척하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의 눈에 거슬려서 다 멸하신다.
13.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인 중심을 벗어나서 스스로 세운 세계다. 고로 하나님은 불바다로, 각종 고통으로 멸하셨다. 고로 사탄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

다.

14. 뜻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주도 돕지 않으신다. 스스로 멸망받게 하신다.

15. 화분도 주인이 뜻이 없어서 물을 안 주면 스스로 죽는다.

16. 세워 놓은 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영원히 스스로 못 서듯이, 한 번 중심을 잃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넘어지면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온다.

17. 하나님과 성자를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영을 아예 없애 버리지 않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해서 고통 받게 하는 뜻이 있다. 그 비밀이 있다.

18. 천국에 간 영만 모든 것을 온전히 안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육신이 받고 사는 육의 세계이며, 다른 한 곳은 영이 받고 사는 영의 세계다.

20. 이 세상의 메시아든 중심자든 하나님이 최고로 함께하시면서 그 육으로 썼던 자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격이 되지 못한다. 삼위일체의 분신, 즉 분체는 된다.

21. 사람을 삼위일체로 믿으면 실망한다.

22. 삼위일체는 전능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요, 인간을 지으신 존재이시다.

23.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해서 모세가 창조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면서 모세가 가르 것같이 하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믿으라고 한 것이다.

24.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25. 근본의 중심을 삼위일체에게 두어라.

26.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세운 자, 보낸 자를 쓰고 다 행하신다.

27. 중심자를 붙잡고 행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28. 넘어졌어도 다시 세우려면 중심을 놓고 세우면 된다.

29.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줘야 영원히 같이 존재한다.

30.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중심적 사랑이면 안 된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대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도 좋아서 그를 영원히 존재시키신다.

32.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그 사람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신다.” 한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

33.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그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심하면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다.” 한다. 아니다. 그는 그 전에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34. 섭리사에서도 하나님은 그동안 섭리사에 오기 전부터의 행위를 다 보시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섭리사에서 일한 것을 다 보고 쓰신다.

35. 자기 공적은 자기 것이다. 자기가 공적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에게 100% 다 주시고, 나름대로 다 갚아 주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36.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다 받는다.